

전남형 기본소득제, 형평성 논란

우승희 의원 “지급대상·개념 등 불분명” 지적 전남도 “용역·전문가 의견 수렴…내년 시범 실시”

전남형 기본소득제가 대상이 불확실하고 표현도 애매하는 등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 1·사진)의원은 22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는 구직 중인 청년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남형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영역에서 개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에게 개인 단위로 경제적 형편, 노동 유무 등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며 “전남형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등 아무 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구직 중인 청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으로 지급대상을 정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것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전남형 기본소득보다 농민수당, 청년수당으로 말하거나, 서울시와 같은 청년배당으로 말하는 것이 명확하고 쉬운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제기,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농민수당의 경우 해남은 농가 경영체를 기준으로, 강진은 농민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며 “또 농가 15만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을 지급할 경우 1천8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년수당의 경우 50만원씩 6



“전남도의 새천년 상품권과 10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중 어떤 것인지에 따라 지급과 유통, 회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광완 전남도기획조정실장은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

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지급 기준을 구직활동 여부, 소득기준 여부, 정부 청년구직활동 수당 중복 여부에 따라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다”며

전남형 기본소득제란

이 사업은 구직 중인 청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민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용역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해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22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기본소득제’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방 통신망 디지털 전환 교체 전남도, 현장 대응력 향상 기대

전남도소방본부는 22일소방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총 2천240대의 무전기 가운데 아날로그 방식인 1천560대(기지국용 145·차량용 351·휴대용 1천56대 등)를 디지털로 전면 교체하고 소용방식도 디지털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방식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말에 허가 기간이 종료된다. 불법 도청과 통화 불량 등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나타난 고질적 문제가 해소된다. 또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최신 디지털 무전기는 아날로그 대비 음성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확장성 있는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어져 화재 진압 등 재난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소방본부는 산간 계곡 및 섬 지역 난청 해소를 위해 기지국을 보강할 계획이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광주시 외자유치 5년 연속 전국 ‘꼴찌’

전체 127조5천억 중 2천163억 0.16% 불과 송갑석 의원 “지자체 맞춤형 지원책 절실”



송갑석 의원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수도권에만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에도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 등 지역별 투자 유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광주시 외자유치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사진)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각 시도별 외국인 투자도착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총 2천163억원만을 투자 받았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금 127조 5천75억 가운데 0.16%에 불과한 금액이다.

외국인 투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70%가 넘게 몰린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극심

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47%인 60조 23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조 8천210억(12.4%), 인천 14조 3천668억(11.2%)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1조5천934억원으로 11번째였다.

외국인 투자 규모는 2008년 9조 5천 152억에서 2017년 13조 2천570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와 대구의 경우 오히려 최근 5년간 투자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2014년 215억 1천750만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점진 감소해 2018년 현재 33억 9천7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투자금액 90억 6천만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관광전담기구 설립 ‘시동’

김영록 지사 핵심공약... 4천300만원 들여 용역발주

전남도가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핵심공약인 지역 관광전담 기구 설립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주 사업비 4천300만원이 소요되는 지역관광 전담기구 설립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용역은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당시 전남관광공사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지사 취임 이후에도 시정연설 등을 통해 관광사업 등의 핵심 내용이 다뤄진다.

연구용역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서 지역관광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 전담기구 유형, 전남도 관광부서와 전담기구 간 역할과 기능 조정방안 등의 핵심 내용이 다뤄진다.

또 향후 5년간 수익 흐름 추정 및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전담기구가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 및 직급별 분

야별 적정 소요인력 분석, 직급별 적정 인건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 추정등의 분석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와 전담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출연금(자본금 및 운영출연금) 규모, 자본금 출연형태(현금 및 현물 출연) 등도 분석한다. 용역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전남 관광산업여건 및 전남 관광실태도 분석한다.

전남도는 5개월 정도 걸리는 용역을 토대로 2020년 1월 전담기구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관광을 이끌 전담기구 형태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전담기구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친일잔재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광주시, 7월부터 유·무형 잔재 전수 조사

광주시가 24일 오후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광주 친일잔재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광주 친일잔재 조사’ 용역을 맡아 지난 7월부터 광주 관내 친일인사와 관련된 시설·지명·행사 등 유·무형 잔재를 전수 조사 중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편찬) 수록자 가운데 광주지역 출신 친일인사와 친일 활동 행적이 남은 인사를 조사 분류한 성과, 비석, 벵거 등 식민

지 잔재 시설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친일잔재는 철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활용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지역에 잔존하는 친일잔재에 대한 제보를 11월 17일까지 받고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김영록 지사,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수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8회 ‘2018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201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각 분야 대표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혁신 성장산업 육성, 전남 관광 6천만 명 유치 기반 조성,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 구축, 지역 핵심 SOC 확충과 신성장 거점육성,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도정과 소통하

는 혁신도정 실천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시군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민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렴하는 ‘민박형 현장감담회’를 실시,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번 수상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호적으로 평가해준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수시로 살피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 행복시대’, ‘옴뎀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승환기자 ysh6873@hanmail.net

미래가 보이는 비즈니스의 시작, SRB빌딩과 함께하세요.

합리적인 임대료/관리비
(시스템 에어컨 설치, 리모델링 완료)

경쟁력있는 입지조건

- 도시재생뉴딜사업 (2024년 예정)
-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밸리

광주역에서 100M 내 위치

편리한 교통

전용 196.5형 (분할 가능)

4F

SRB 사랑방미디어 문의 062) 510-1141